

'92 미국 산업위생학회에 다녀와서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김치년

미국 산업위생사협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와 미국 산업위생사 전문위원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93 미국 산업위생학회 및 전시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Conference &

Exposition, AIHCE)

가 1993년 5월 17

일 미국 Louisiana

주 New Orleans의

Ernest N. Memorial

Convention Center

에서 개최되었다.

학회 기간은 5월

17일에서 21일까

지, 전시회는 5월

17일에서 20일까

지 진행이 되었다.

우리 연구소에서

는 노재훈 교수

와 함께 Poster

Session 3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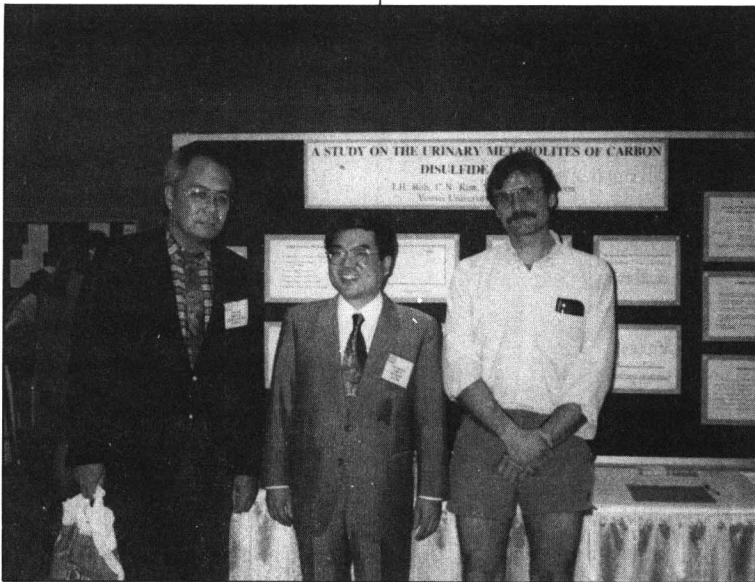
Biological monitoring분야에서 "A study on the urinary metabolites of carbon disulfide in rats"의 제목으로 발표를 하기 위하여 참가하였으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는 학회기간동안 수많은 분야의 토론회, 연단발표, 포스터발표, 전시회 등 많은 행사로 짜여져있으며 행사규모, 참가국,

참가인원을 생각하여 볼 때 미국내 학회라 하기보다는 전세계 산업보건분야 모임의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백남원 교수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오세민 실장, 그리고 박동욱 연구원이 함께 참석을 하였다.

5월 17일 월요일 7시부터 등록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8시에 본 행사의 개회식을 기점으로 10시부터 다양한 토론회와 발표가 정확히 행사일정에 맞추어 시작되었다.

오전행사인 원탁회의(Roundtable)에서는 저농도 노출에 있어서 영향의 역학적 평가와 해결, OSHA의 미래

에 대한 전망, 인간공학적 측면의 개인보호구 등의 토론회와 연단발표(Technical session)에서는 보호의와 장비, 시료포집장치, 분석화학, 유해가스 및 증기의 시료포집장치의 성능, 석면관리를 주제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후행사인 포스터발표(Poster session)에서는 에어로졸의 특성,



UCLA대학 Shanes Quehee교수(좌)와 Cincinnati대학 Glenn Talaska 교수(우)가 노재훈 교수의 발표장소를 방문한 후 기념촬영

실내오염, 실내공기의 검출을 주제로, 그리고 연단발표는 독성학, 납 I, 인간공학 I, 인간공학 II, 산업위생의 일반적인 업무 I, 밀폐공간, 소음평가와 관리, 피부폭로와 평가, 빌딩 실내의 공기 평가를 주제로 같은 시각에 여러 장소에서 주제별로 토론회와 발표가 함께 있어 관심있는 분야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첫날 행사가 끝날때 쯤에는 다리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피곤함이 있었다. 둘째날은 우리 연구소의 발표가 오후 1시에 있어 아침 일찍 기상하여 행사장에 참석을 하였으며 첫날과 같이 오전동안은 계속 이동하면서 관심있는 주제발표를 경청하였다. 오전행사의 주요내용은 시료포집 및 실험실분석 I, 환기 I, 생물학적 모니터링, 농촌보건과 안전 등의 많은 주제에 대한 연단발표와 위해성 평가 등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산업위생의 일반적인 업무, 소음, 독성학 분야의 포스터발표가 있었고, 오후행사에도 첫날과 같이 많은 장소에서 여러형태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위생의 윤리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폭로평가, 유해성 폐기물 II, 납 II 등 다양한 주제의 연단발표가 있었다. 또한 포스터 발표가 생물학적 모니터링, 인간공학, 실내공기오염의 관리 등을 주제로 하였는데 우리연구소는 Poster session 3에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주제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많은 외국학자들의 관심속에서 무사히 발표를 마쳤다. 특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미국내에서 Biological Monitoring 분야의 책도 많이 내시고 이 분야의 대학자로 유명하신 Lowry, Shanes Quehee 교수가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이다. 발표를 마치고 전세계 산업위생 분야에 관련된 측정장비, 보호구, 안전장비의 제조회사 그리고 분석대행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전시회를 관람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제조회사의 이름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표의 회사이름이 눈에 보이지 않아 서운한 생각과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전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고 다양하여서 관람만 하는데도 하루정도의 시간이 소비되었다. 얼마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여 KOEX에서 열린 국제안전기기 전시회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학회를 마치고 NIOSH와 EPA가 있는 미국내의 양반도시인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위치한 신시네티대학을 방문하여 산업보건분야의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어지고 있는지를 배웠으며 미국 암연구소(NCI)가 주관하는 연구에 신시네티대학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기로 협의를 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NIOSH를 방문하였으며 여기서 제공되어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산업보건 분야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가 NIOSH에서 제공된 것이어서 상당히 규모가 큰 연구소로 생각이 되어졌으나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매우 놀라왔다. 더욱 놀란 것은 연구소의 연구실적이나 업적을 규모면으로 비추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업보건분야의 많은 연구소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소들은 연구업무외의 다른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시설이나 인력부족의 탓으로 연구수행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아이디어 부족과 인식의 결여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였고 NIOSH 직원들의 친절함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NIOSH가 전세계의 산업보건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다. ♣

